

맞벌이주부의 시간부족(time famine)인식

손 문 금*

초 록

기존의 생활시간연구자들이 맞벌이주부의 이중부담과 시간갈등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시간이 가장 부족한 집단으로 인식되어 온 맞벌이주부들을 중심으로 시간부족인식에 대한 직접적인 결과를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맞벌이 주부들의 시간이 부족하다는 인식에 영향을 주는 상황들에 대해 알아보고, 다른 상황조건들을 통제하였을 때 맞벌이주부와 비교집단들 간에 시간부족인식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먼저, 맞벌이주부의 시간부족인식 정도와 그 이유를 살펴보면 맞벌이가구와 부인홀벌이가구의 여성 집단의 시간부족인식의 정도가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았다. 특히 맞벌이 가구의 경우 남성과 여성 모두 시간부족인식이 다른 가구형태보다 높았는데 남성들은 시간이 부족하다고 항상 또는 가끔 느끼는 경우가 약 80%, 여성들의 경우에는 약 87%를 보였고 맞벌이여성의 경우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40%를 넘고 있었다. 맞벌이 주부들은 ‘일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었지만 ‘자녀양육 및 집안일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경우도 36%정도 있었다. 그러나 남성들의 경우에는 ‘일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고 다음은 ‘교제 및 사회활동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었다. 둘째, 시간부족인식과 다른 생활시간의 관계를 보면 시간부족인식과 유급노동, 무급노동시간은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지만 유급노동시간이 더욱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여가시간은 시간부족인식과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셋째, 시간부족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사회학과 박사과정수료.
E-Mail : starnoir@hanmail.net.

인식에 영향을 주는 상황변수들을 살펴보면, 30, 40대를 중심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전문/관리직을 중심으로, 만6세미만의 미취학아동이 있을 경우, 직계가족에서, 주당 36시간이상 일하는 사람들의 시간부족인식이 높았다. 특히 여성이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전문직에서 전일제 임금근로자로 종사하는 경우 96%가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고 전일제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미취학아동이 있을 경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응답비율이 92%를 넘고 있었다. 맞벌이부부의 결합형태에서는 남편과 부인이 모두 임금근로자인 경우와 남편이 전일제로 일하는 경우의 시간부족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통제하는 로짓(logit)분석을 통하여 살펴보면 여성은 남성보다 2.5배 시간부족인식이 높으며, 유급노동이 없는 사람들보다 시간제유급노동자는 2.7배, 전일제유급노동자는 6.6배 시간부족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단어 : 맞벌이가구, 맞벌이주부, 시간부족인식, 이중부담, 생활시간

I. 문제제기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빈 여백의 시간이 없도록 일정을 관리하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하다. 일상생활은 시간의 흐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진행되고 최근 들어 일상생활을 시간의 구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시간에 대한 논의들 중에서도 현대사회에서는 특히 시간부족에 대한 관심이 일반인들 사이에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다.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줄이고 짜임새 있는 시간관리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요건이기 때문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말을 흔히 듣는다. 그러나 시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시간을 관리하는 방법이 제시되지만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점점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하루의 생활을 더욱 서두르면서 살고 있다고 느낀다.

삶이 서두르면서 진행되고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시간부족인식과 그들의 삶의 질이 직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상생

활에서 서두름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그들의 건강과 삶의 만족이 서두른다는 느낌을 덜 가진 사람들보다 더 낮거나 삶의 속도가 증가하면 인내와 학습, 훈련, 책임이 필요한 행동들을 피하고 대신 그들의 바쁜 일상을 거들어 줄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나 활동, 모임들만을 선택 또는 선호한다는 연구결과들이(Robinson & Godbey, 1997:46-48) 이를 보여준다. 그러므로 사회집단간 시간부족인식에 대한 차이는 그 집단의 삶의 만족이나 선호하는 행동과 관련하여 삶의 질을 말하는 한 측면이 된다.¹⁾

그러면 한국사회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어느 집단이 가장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며 살아가고 있을 것인가? 그들이 가진 어떠한 상황이 그들로 하여금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며 서두르면서 살아가도록 하고 있을 것인가? 생활시간연구자들은 기혼의 취업여성들은 그들이 안고 있는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의 이중부담 때문에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여가시간이나 수면시간 같은 생활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논의를 이끌어왔다.²⁾ 기혼의 취업여성들은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에 대한 기존의 책임에 유급노동을 더하게 되었고 두 가지 일을 완성하기 위한 하루의 시간은 24시간으로 이전과 같기 때문에 두 가지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시간과 자신을 위해 남겨진 시간이 모두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끼며 사는 중심집단이라는 점이 강조된다(손문금, 2003; 이기영외, 2001; 문숙재, 1996; 이기숙, 1994; 한경미, 1991; 이호재·지은희, 1988).

1) 한국사회에서 삶의 질은 삶의 전반적인 수준을 의미하면서 학자들에 따라 복지, 안녕, 생활만족, 행복 등 다양한 말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러한 삶의 질을 규정짓는 요소는 크게 주관적 요소와 객관적 요소로 구분되는데 객관적 요소는 삶의 물질적 조건들로 구성되고, 주관적 요소는 삶에 대한 행복감, 만족감, 자립감, 성취감, 문화적 풍요로움, 안전, 스트레스 부재 등으로 구성된다(이현송, 1997:271).

2) 시간사용에 대한 글들은 전형적으로 시간이 네 가지의 범주들-유급노동, 무급노동, 개인유지, 자유시간-사이에서 할당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유급노동시간은 시장에서 수입을 만드는 활동들에 할애된 시간이다. 무급노동시간은 음식준비, 청소, 세탁, 집관리, 가정경영, 아이돌보기 및 그 외 가족돌보기, 쇼핑 등을 포함한다. 개인유지 시간은 수면, 식사, 씻기, 외모관리, 옷입기, 의료적 치료받기로 구성된다. 자유시간은 나머지 범주이다(Robinson & Godbey, 1997:3~23). 이러한 시간 중 자유시간에는 여가로 명백히 수행된 활동들에 할애한 시간과 종교활동이나 시민활동과 같이 임의의 목적들을 수행하기 위해 할애한 시간 둘 다를 포함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시간구분을 따르도록 하며, 자유시간을 여가시간의 시간사용범주로 사용하겠다.

생활시간연구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연구들은 기혼 취업여성의 이중부담에 집중적인 관심이 주어져 유급노동, 무급노동, 여가시간 사이의 시간 갈등에 초점을 맞추었을 뿐 그들의 직접적인 시간부족인식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기혼의 취업여성들의 이중부담으로 인한 시간부족 정도를 밝히기 위해 그들이 어떻게 시간을 쓰고 있는지에 대한 측정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은 그들의 주관적 인식에 따라 행동을 선택하고 시간을 조직한다는 측면에서 주관적인 시간부족인식이 어느 정도이고 다른 집단과는 어느 정도의 차이를 가지는지에 대해 통계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전국적인 수준의 대표성을 가지는 표본집단으로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가장 부족한 집단으로 인식되어 온 기혼의 취업여성 즉 맞벌이주부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시간부족의 정도와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를 가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맞벌이주부들의 시간이 부족하다는 인식에 영향을 주는 노동상황과 가족상황에 대해 알아보면서 여성집단들 간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II. 선행연구검토

시간부족인식에 대한 논의는 총노동시간³⁾과 시간부족인식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대표적이다. 총노동시간과 시간부족인식의 관계에 대한 논의들이 전제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루의 시간은 24시간으로 한정되어 있고 각 임무들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각 시간들 간에 제로-섬(zero-sum) 법칙이 적용되며 각 시간들은 지속적인 흐름의 연결 속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총노동시간이 길고 개인을 위해 남겨진 시간이 적다는 것은 시간

3) 남성에 대한 여성의 이중부담 가정들은 평등의 지표로써 유급노동시간과 무급노동시간의 합인 총노동시간을 사용하여 노동시간의 성평등과 노동시간의 여가시간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논의한다. 이러한 총노동시간의 성평등과 노동시간의 여가시간에 대한 영향이라는 관점을 채택한 학자는 Schor(1991)이다.

이 부족하다는 인식의 기초를 이루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의 이중부담(double burden)을 가지는 여성은 어떠한 집단보다도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의 합인 총노동시간이 길고 자유시간이 적어 가장 많은 시간부족(time famine) 인식을 가진다. 스커의 논의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직장에서만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시간부족을 경험하고 있는데 특히 직장과 가정의 일을 해야 하는 이중부담을 가지고 있는 전일제 유급노동을 하는 여성의 경우가 그렇다. 그들은 주당 40시간 이상을 직장에서 보내고, 25시간에서 45시간 정도는 가사 일을 하는데 보내면서 직장에서는 물론 가정에서도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항상 시간부족 및 시간압박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Schor, 1991). 특히 부부가 다 정규직으로 일하면서 6세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는 맞벌이 가족의 취업여성들은 임금노동(임금노동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경우이든 어쩔 수없이 임금노동에 참여한 경우이든)이 가사와 육아에 덧붙여지면서 남편보다 주당 15시간, 1년에 한달 더 일하는 결과를 낳았고 가정에서는 부부사이에 여가시간의 격차를 만들어 냈다(Hochschild, 1989). 여성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거나(가게부를 쓰면서 전화를 한다던가, 청소를 하면서 세살짜리 아이를 본다던가) 가족의 행동을 재촉하고 서두르는(빨리 해, 그건 나중에 해도 되잖아, 잘 시간 됐다) 등 가족생활의 속도를 빨리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결국 여성들은 직장일과 집안일로 해야 할 일이 두 배가 되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다급해지면서 시간이 부족하다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한다.

한편 미국사회에서 여가가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인식은 개인의 노동시간이 증가한 결과가 아니라 맞벌이 가족의 증가에 따른 가족단위의 총노동시간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논의가 있다(Jacobs & Gerson, 2001). 개별 노동자의 노동시간에 있어서의 중요한 변화가 없을지라도 맞벌이가족의 보편화에 따른 주당 가족노동시간의 증가가 시간부족인식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특히 주당 100시간 이상 일하는 커플들은 주로 고학력의 전일제 노동자들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시간부족인식

이 높게 나타남을 지적한다.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가구단위에 따른 시간부족인식의 차이를 검증하는 논의도 있다. 즉, 맞벌이부부의 남편들은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의 남성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직장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고 하며, 맞벌이부부의 부인은 남편이 오랜 시간을 일 할 경우 더욱 시간이 부족하다고 인식한다는 것이다. 또한 부부가 둘 다 전문직인 경우 시간부족을 50~90% 더 높게 느낀다고 한다 (Clarkberg & Moen, 2001).

기혼 취업여성의 노동시간증가와 여가시간부족은 서구 10개국의 시간일기⁴⁾ 조사자료를 통하여서도 입증된다. 선진서구사회에서도 유급노동시장에 진입한 여성이 남편들을 가사노동에 끌어들이는 데 실패하면서 보이는 총노동시간과 여가시간에서의 성간의 격차가 1960년대 이후 계속되고 있다. 특히 계층간 여가시간의 격차가 주목되는데 제조업 육체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19세기 이후 분명히 줄어들었지만 상위계층 소위 지식층들의 노동시간은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지식인들은 일 그 자체를 즐기면서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Gershuny, 2000). 이러한 성 및 계층간 여가시간의 격차는 여성, 백인의 고학력, 고수입자들의 시간부족인식이 특히 높다는 통계결과(Robinson & Godbey, 1997)와 연결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결국 지금까지 시간일기를 분석한 결과들에 따르면 총노동시간이 길고 자유시간이 가장 부족한 계층의 사람들로서는 혼인을 한 전일제 유급노동자들, 특히 맞벌이 부부, 맞벌이 부부 중 여성, 그리고 미취학 아동이 있는 사람들, 백인의 전문직·고학력자들이었다. 이들은 객관적인 시간일기상의 총노동시간이 비교집단에 비하여 길고 주관적으로 느끼는 시간에

4) 시간일기법은 시간수지(time budget) 정보를 모으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응답자들이 자신의 언어로 직접 24시간동안 행한 활동을 기입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조사자는 사람들이 말할 수 있고(성적이거나 생리적인 활동은 보고하지 않음), 말하고자 하는 것 이상을 알 수 없으며 보고를 왜곡하여도 통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일기 자료로부터 도출되는 강력한 설득력은 시간에 대한 'zero-sum'소유로부터 나온다. 시간일기 자료의 중요한 특징은 그날의 24시간이 모두 보고 되며 모든 인간의 행동이 포착되고 표현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간일기에서 활동들에 할당된 시간을 가지고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Robinson & Godbey, 1999 : 3-8).

대한 압박과 스트레스도 큰 것으로 나타난다. 결국 총노동시간과 시간부족인식의 관계를 다루는 연구들은 시간부족인식은 그가 가진 성, 배우자의 경제활동과 생애주기에 따른 가족상황, 직업·노동시간과 같은 노동상황, 혼인상태·학력·연령·인종과 같은 개인적 상황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⁵⁾

이러한 논의들은 서구사회에서 이중부담과 여가시간의 부족에 따른 기혼의 취업여성들의 시간이 문제시되면서 그들의 총노동시간과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시간부족의 관계, 여성의 시간부족인식이 다른 집단과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제시하는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이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는 총노동시간과 시간부족인식의 관계를 제시한 논문이 없을 뿐 아니라 기혼 취업여성의 주관적인 시간부족인식의 정도와 집단별 차이에 대한 통계적 자료는 없는 실정이다. 취업여성들이 가지는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시간의 정도, 여가시간의 정도와 그 내용에 대한 논의가 있을 뿐이다. 여성의 시간부족인식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서울시와 광주시에 거주하는 396명의 취업주부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약 76%에 해당하는 비율이 직장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는데 시간

5) 총노동시간과 시간부족인식 사이의 관계보다는 시간부족인식에 영향을 주는 다른 측면들에 관심을 가지는 연구도 있다. 하머메쉬와 리(Hamermesh & Lee, 2003)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인식에 여성과 남성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절대적인 총노동시간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직장과 가정에서 똑같은 시간을 쓰면서도 시간에 쫓기며 여유 없이 살고 있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고소득 가정에서 월등하게 많고, 총노동시간에서 남성과 여성이 차이가 없다고 할지라도 여성이 더욱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직장을 가진 남녀가 직장과 가정에서 같은 시간을 일해도 여성이 시간에 더 쫓기며 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를 이들은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다양한 책임을 맡고 있거나 관리자 역할을 떠맡고 있기 때문에 더 초조해 할 수 있다는 데서 찾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시간부족인식이 총노동시간과 관련을 가지고 있으므로 노동과 가족 사이에서 두 가지 책임을 완수 해야만 하는 여성이 시간부족을 더 느낀다는 논의와는 다르게 시간부족에 대한 인식은 총노동시간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로빈슨과 고드베이(Robinson & Godbey, 1997)도 시간부족인식에 대한 총노동시간 이외의 원인을 지적하고 있다. 그들에 따르면 시간은 속도와 지속이라는 두 가지 성질을 가지는데 사람들은 그들이 더욱 열심히 일하고 있거나 더욱 빠른 속도로 일하고 있으면 그들이 더 오래 일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한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노동강도는 강화되고 노동속도는 가속화되면서 삶의 속도가 가속화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시간을 모두 소비해 버렸다고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충분하고 여유있는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항상 쫓긴다고 보고하는 결과가 있을 뿐이다(한경미, 1991). 간접적으로는 노년층이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을 분담하면 기혼여성은 좀더 쉽게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고 따라서 부모와 동거하는 며느리의 취업률이 높아진다고 하면서(성지미·차은영 2001) 가족의 형태가 여성의 시간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지적하는 논문이 있다. 이는 서구사회와는 다르게 한국사회에서 가족형태가 여성의 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 중의 하나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서구사회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맞벌이주부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느끼는 주관적 시간부족인식의 정도를 제시하고, 시간부족인식과 총노동시간의 관계를 제시하면서, 배우자의 경제활동과 생애주기에 따른 가족상황, 직업·노동시간과 같은 노동상황, 혼인상태·학력·연령과 같은 개인적 상황 등이 시간부족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맞벌이가구나 맞벌이주부들의 주관적 시간부족인식의 정도가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가장 높다고 말할 수 있는지, 맞벌이주부 중 전일제의 미취학아동을 가진 사람들의 시간부족인식의 정도는 어떠한지, 그들의 직업, 종사상지위, 부부의 경제활동상태, 가족형태와 막내자녀의 연령은 시간부족인식과 어떠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할 것이다. 또한 한국사회가 전통형의 남편수입가구로부터 맞벌이 가구가 보편적인 가족으로 대두되고 있으면서도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과도기에 있다고 할 때(이현송, 2000) 맞벌이가족의 생활시간을 다른 가족형태 즉 전통형가족⁶⁾, 부인홀벌이가족, 부부비취업가족의 생활시간과 비교하거나 시간부족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차

6) 본 글이 현대사회의 가족이 근대사회의 이념형적 가족유형인 남편의 도구적 역할과 부인의 표현적 역할이라는 성역할분리에 의해 유지되던 가족에서 맞벌이 가족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본 글에서는 맞벌이가족에 대비되는 남편홀벌이가구를 전통형가구(가족)으로 이름하도록 하겠다. 이러한 명칭은 Clarkberg & Moen(2001)가 가구수준에서 시간압박현상을 개념화하기 위한 시도에서 맞벌이가구(부부가 모두 주당 35시간 이상 유급노동을 하는 경우)에 대한 대비로 전통형가구(남편이 주당 35시간 이상 일하고 아내는 전업주부인 경우, traditional couple)를 구분하는 데서 보여진다.

이를 보이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자료 및 분석단위

분석자료는 통계청의 1999년 『생활시간조사』 원자료이다. 이 자료는 시간일기 방법에 의해 정보가 수집되었다. 『생활시간조사』는 9월에 이루어졌는데 16,389가구의 표본으로부터 10세 이상의 모든 가구원들이 이틀간의 시간일기를 10분 간격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들은 주된 행동, 동시행동, 행동장소 등을 기록하였다. 조사된 전체 가구수는 16,389가구이고 이들이 모두 이틀분의 시간일지를 응답하였으므로 한 가구가 이틀간 기록한 시간일기를 두 가구가 각각 하루일지를 기록한 것으로 간주한다면 총 32,778가구가 시간일기를 제공한 셈이다. 1999년 『생활시간조사』에서 최종표본은 32,750가구, 42,953명의 85,906⁷⁾개의 일기날짜를 포함하고 125개의 행동코드로 분류된 행동들을 포함하고 있다.

『생활시간조사』는 전국적인 단위로 조사된 전체 인구를 대표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맞벌이주부의 주관적인 시간부족인식을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일반화할 수 있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자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자료이다. 또한 응답자의 주관적 기준 및 태도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관적 판단에 근거한 시간사용의 정도가 아니라 객관적 시간일기 기록에 의한 시간사용의 정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여성의 이중부담과 시간부족인식의 관계를 살펴보는 데 적합한 자료라고 생각된다.

남성과 여성은 각 가족의 상황에 따라 다른 생활시간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부부들을 한 단위로 하는 가족상황 속에서 배우자들의 경제활동

7) 42,973명의 이틀분 시간일기중 하루의 모든 행동시간의 합이 1,440분이 되지 않는 40개의 시간일기를 삭제하여 총 42,953명, 85,906개의 시간일기가 남았다.

상황이 다른 배우자들의 시간부족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분석대상은 가족의 상황을 고려하기 위하여 가구를 단위로 하여 분석할 것이다. 가족상황 안에서의 남성과 여성비교는 가족상황이 개인들의 시간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는지 살펴보는데 도움을 주며 가족간의 차별화를 강조하는 분석단위이다.

2. 분석대상

시간일기를 제공한 전체 32,750가구 중 가구주가 유배우인 경우가 74.5%(24,389가구)로 가장 많고 다음이 사별가구로 10.8%(3,539가구), 미혼가구 9.0%(2,947가구), 이혼가구 3.2%(1,062가구) 순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가구주의 혼인상태가 유배우자이면서 부부가 모두 조사된 가구는 22,464가구이다. 이외에 1925가구는 가구주가 혼인상태는 유배우자라고 응답하였지만 부부 중 한명만 조사된 경우이거나 부부가 서로 다른 일자에 시간일지를 작성하여 한 부부로 분류할 수 없었던 경우이다.

부부가 모두 조사된 유배우가구 중 남편과 부인 모두 '지난 1주간 수입노동이 있었다고 응답'하여⁸⁾ 맞벌이 가구로 분류된 가구는 45.5%(11,087가구)이고, 남편만 수입노동을 하였다고 응답하여 전통형가구로 분류된 가구가 33.9%(8,269가구)이다. 그리고 4.7%(1,156가구)는 남편이 수입노동시간이 없었고 부인이 수입노동을 하였다고 응답한 가구이며,

8) 『경제활동조사』에서는 임금근로자, 자영자, 고용주와 다르게 18시간미만 무급가족종사자는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로 처리된다. 이는 1954년에 "국제노동통계 전문가 회의"에서 보통의 취업시간의 최소한 1/3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를 취업자로 보는 기준이 있었으나, 1982년 "국제노동통계 전문가 회의" 이후 취업시간에 상관없이 취업자로 볼 수 있도록 완화되었고 국가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데서 유래한다. 현재 미국은 15시간, 오스트리아는 13시간 이상의 무급가족종사자를 취업자로 보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자영업의 비중이 높아 1시간이상의 무급가족종사자를 모두 취업자로 보게 되면 취업자 규모가 왜곡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까지 통상 노동시간의 1/3이상 조건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통계청, 통계자료문의에 대한 답변내용). 그러나 본 연구는 무급가족종사자의 대부분이 여성이고 이들의 노동을 임금근로자나 자영자, 고용주와 다르게 취급할 경우 여성의 노동이 평가절하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1시간이상의 무급가족종사자를 경제활동인구로 처리하였다.

8.0%(1,952가구)는 남편과 부인 모두 수입노동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표 1> 가구의 혼인상태 및 경제활동 유형별 가구분류

혼인상태		가구수(%)
미혼가구		2947(9.0)
사별가구		3539(10.8)
이혼가구		1062(3.2)
유배우가구		24389(74.5)
미상 ¹⁾		813(2.5)
전체		32750(100.0)
유배우 가구	맞벌이가구	11087(45.5)
	남편홀벌이가구	8269(33.9)
	부인홀벌이가구	1156(4.7)
	부부비취업가구	1952(8.0)
	미상 ²⁾	1925(7.9)
	소계	24389(100.0)

자료 : 통계청(1999),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주 1) 가구주는 조사되지 않고 가구주 이외의 사람이 응답한 가구이다.

2) 가구주가 유배우자라고 응답하였지만 부부 중 한명만 조사된 경우이거나 부부가 서로 다른 날짜에 응답하여 한 가구로 분류되지 못한 경우이다.

이러한 분석대상에서 남편과 부인 중 한명이라도 농/임/어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 20세 미만과 60세 이상의 연령이 포함된 가구를 제외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농/임/어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여성들에 대한 독특한 생활시간을 보고하고 있다(문숙재, 1999). 또한 20세 미만의 연령층에는 지금까지의 생활시간 연구에서 여가시간이 가장 많은 집단 중의 하나인 학생들이 많이 포함되며(Robinson & Godbey, 1997; 205-215), 60세 이상의 인구에는 은퇴한 노인들이 포함되어 이들은 집중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20세-59세 사이의 사람들과는 서로 다른 시간구

성원리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표 2> 분석대상의 가구분류

가구구분	가구수(%)
맞벌이가구	7366(44.8)
전통형가구	7529(45.8)
부인홀벌이가구	736(4.5)
부부비취업가구	817(5.0)
전체	16448(100.0)

자료 : 통계청(1999),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최종적으로 선택된 전체 맞벌이가구는 7,366가구이다. 남편 혼자서 수입노동을 하는 전통형 가구는 7,529가구로 맞벌이 가구보다 많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아직까지 맞벌이 가구의 많은 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농/임/어업종사자들(김태홍·주재선, 1997)을 본 글의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이다. 부부비취업가구의 비율도 8.0%에서 5.0%로 줄어들었는데 이는 60세 이상 노인층을 분석대상에서 제외한 결과이다.

3. 주요변수와 측정방법

시간부족 인식과 관련이 있는 변수들로는 개인상황, 가족상황, 노동상황 변수들이 고려될 수 있다. 개인상황 변수는 성, 학력, 연령, 혼인상태, 거주지역 등의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이고, 가족상황 변수로는 미혼막내 자녀의 연령과 같이 여성의 생애주기와 관련된 변수와 핵가족과 직계가족으로 나뉘는 가족형태의 변수이며, 노동상황 변수로는 부부의 경제활동 상태, 노동시간, 종사상지위, 직업, 수입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성과 혼인 상태, 부부의 경제활동 상태는 이 연구의 가구단위의 분석대상 분류상에 이미 나타나 있다. 수입은 매우 중요한 변수이지만 안타깝게도 조사가 되어있지 않다.

시간부족에 대한 인식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서두르고 있다고 인식

한데 관심을 둔다. 즉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해야만 하는 모든 것을 수행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인식이다. 로빈슨과 고드베이는 이러한 시간부족인식을 알아내기 위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완전한 두 가지의 질문은 ‘서두른다는 감정’과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감정’에 관한 질문이라고 한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감정을 1965년부터 ‘귀하가 해야 할 일을 할 때, 귀하는 항상 바쁘다(rushed)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가끔 바쁘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거의 바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라는 질문과 가끔 바쁘거나 거의 바쁘지 않다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귀하는 얼마나 자주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까?(꽤 자주, 때때로, 거의 없음)’라는 질문으로 측정하였다(Robinson & Godbey, 1997:229-240). 한국의 경우 1999년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에서는 ‘평소 바쁘거나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까?’라는 질문과 ‘예’라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바쁘거나 시간이 부족한 이유, ‘여유시간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까?’라는 질문과 ‘예’라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그 이유로 시간부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에서는 ‘여유시간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질문은 평소 바쁘고 시간이 부족하다고 인식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렇다고 응답할 수 있고⁹⁾, 미국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감정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와는 차이가 있으며, 전자의 질문이 더욱 집적적인 시간부족인식에 대한 질문으로 생각되어 전자의 질문만을 시간부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나타내는 지표로 삼아 살펴보도록 하겠다.

4. 분석대상의 특징

이 연구에서 분석된 응답자들의 인구구성 특징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보듯이 맞벌이를 하는 가구에서 남편은 40대, 부인은 30대

9) [부표 1]에 시간부족인식과 여유시간인식의 관계에 대한 교차표가 제시되어 있다. 부표에서 보듯이 항상 바쁘고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2,241명이 여유시간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항상 모른다고 응답하고, 가끔 바쁘고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16,707명이 여유시간에 가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고 응답하고 있다.

와 40대의 비율이 다른 가구형태보다 높다. 전통형가구는 20대와 30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부인홀별이가구는 40대와 50대, 부부비취업가구의 연령대는 50대의 비율이 높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미혼자녀의 연령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만6세 이하의 미취학자녀가 있는 가구는 맞벌이가구의 경우 32.0%이지만 전통형 가구는 53.0%나 되어 아이의 출산·양육을 위해 여성이 집에 머물게 되는 경우가 전통형가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 맞벌이를 하는 가구의 미혼 막내자녀연령이 만6세 이하인 경우와 만7세-12세의 초등학교 다니는 경우를 합하면 59%에 달해 가구 내에 돌볼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많은 여성들이 맞벌이를 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나타난다. 부인홀별이가구와 부부비취업가구의 미혼자녀연령은 만 19세 이상인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3> 분석대상

단위 : 명(%)

구 분		맞벌이가구		전통형가구		부인홀별이가구		부부비취업가구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연령	20대	307(4.2)	845(11.5)	724(9.6)	1680(22.3)	30(4.1)	62(8.4)	34(4.2)	99(12.1)
	30대	2610(35.4)	3224(43.8)	3387(45.0)	3284(43.6)	160(21.7)	206(28.0)	207(25.4)	222(27.1)
	40대	2972(40.4)	2646(35.9)	2205(29.3)	1921(25.5)	243(33.0)	287(39.0)	200(24.5)	244(29.8)
	50대	1477(20.1)	651(8.8)	1213(16.1)	644(8.6)	303(41.2)	181(24.6)	376(46.0)	252(30.9)
교육 수준	중졸이하	1779(24.2)	2751(37.4)	1127(15.0)	1780(23.6)	293(39.8)	393(53.4)	224(27.5)	384(46.9)
	고졸	3662(49.7)	3486(47.3)	3594(47.7)	4295(57.0)	303(41.2)	269(36.6)	418(51.2)	360(44.0)
	전문대졸이상	1925(26.1)	1129(15.3)	2808(37.3)	1454(19.3)	140(19.0)	74(10.1)	175(21.3)	73(9.1)
직업	전문/관리직	597(8.1)	308(4.2)	1009(13.4)	-	-	16(2.2)	-	-
	준전문/사무직	1396(19.0)	1216(16.5)	2142(28.5)	-	-	82(11.1)	-	-
	서비스/판매직	1862(25.3)	3165(43.0)	717(9.5)	-	-	304(41.3)	-	-
	기능/조립/단순 노무직	3511(47.7)	2677(36.3)	3661(48.6)	-	-	334(45.4)	-	-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4137(56.2)	4043(54.9)	5740(76.3)	-	-	558(79.9)	-	-
	고용주/자영자	3101(42.1)	1367(18.6)	1785(23.7)	-	-	148(20.1)	-	-
	무급가족종사자	128(1.7)	1956(26.6)	4(0.1)	-	-	-	-	-

구 분		맞벌이가구		전통형가구		부인홀벌이가구		부부비취업가구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유급 노동 시간	없음	-	-	-	7529(100.0)	736(100.0)	-	817(100.0)	817(100.0)
	35시간이하	622(8.4)	1757(23.9)	490(6.5)	-	-	131(17.8)	-	-
	36시간이상	6744(91.6)	5609(76.2)	7039(93.5)	-	-	605(82.2)	-	-
가구 형태 ¹⁾	부부가족	801 (10.9)		719 (9.6)		116 (15.8)		111 (13.6)	
	핵가족	5500 (74.7)		6135 (81.5)		522 (70.9)		587 (72.1)	
	직계가족	1065 (14.5)		675 (9.0)		98 (13.3)		117 (14.3)	
미혼 막내 자녀 연령 ²⁾	6세 이하	2060 (32.0)		3559 (53.0)		126 (20.8)		196 (28.5)	
	만7세-12세	1738 (27.0)		1180 (17.6)		131 (21.6)		86 (12.5)	
	만13세-18세	1734 (27.0)		1179 (17.5)		162 (26.7)		170 (24.8)	
	만19세 이상	897 (14.0)		804 (12.0)		187 (30.9)		236 (34.2)	
지역	서울	1018 (13.8)		1031 (13.7)		77 (10.5)		113 (13.7)	
	경기	837 (11.4)		853 (11.3)		62 (8.4)		44 (5.4)	
	6대광역시	2767 (37.6)		3019 (40.1)		332 (45.1)		329 (40.3)	
	기타도	2744 (37.3)		2626 (49.9)		265 (36.0)		331 (40.6)	
조사 요일	평일	4510 (61.2)		4502 (59.8)		451 (61.3)		492 (60.2)	
	토요일	1437 (19.5)		1528 (20.3)		142 (19.3)		160 (19.6)	
	일요일	1419 (19.3)		1499 (19.9)		143 (19.4)		165 (20.2)	
합계		7366 (100.0)	7366 (100.0)	7529 (100.0)	7529 (100.0)	736 (100.0)	736 (100.0)	817 (100.0)	817 (100.0)

주 : 1) 가구형태에서 부부가족은 미혼자녀, 기혼자녀, 손자녀, 부모 등의 동거인이 없는 경우, 핵가족은 부부+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로 기혼자녀나 부모님이 한명도 없는 상태이며 기타 동거인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경우, 직계가족은 부부+기혼자녀, 부부+부모님, 부부+기혼자녀+부모님으로 구성된 가구이며 미혼자녀나 다른 동거인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경우이다.

2) 미혼막내자녀연령의 총구성은 미혼자녀가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들을 제외한 구성비이다.

자료 : 통계청(1999),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맞벌이 가구의 남성들은 전문대졸 이상이 26.1%이지만 전통형 가구의 남성들은 전문대졸 이상이 37.3%를 차지한다. 여성의 교육수준도 전통형가구의 여성들은 맞벌이가구의 여성들보다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들이 적고,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들이 많아 전통형가구의 교육수준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

한 사회경제적 지위는 그들의 직업을 통해서도 나타나는데 전통형 가구를 선택하는 남성들의 직업은 전문/관리직과 준전문/사무직의 비율이 맞벌이를 선택하는 가구의 남성들보다 많다. 맞벌이를 하는 여성들의 직업을 살펴보면 서비스/판매직이 43%로 가장 많고, 기능/조립/단순노무직이 36.3%로 그 다음을 차지한다. 결국 이러한 사회경제적인 차이는 중산층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성별분업이 기능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박수미, 2002; 조혜선, 2000). 산업사회에서 저소득층의 경우 생존전략의 일부로서 노동능력이 있는 유배우여성의 대부분이 공식 및 비공식 영역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연구들(조은, 1990, 이동원, 1988)이나 한국사회에서 매우 부유한 층의 기혼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향이 높다는 것과(장혜경·김영란, 1998: 157), 한국 맞벌이 부부들이 중류층이상의 전문/관리직, 준전문/사무직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지 않다는 이전의 연구결과들(김태홍·김미경, 2002)과도 일맥상통 한다.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의식을 조사한 경우에도 기혼자들의 경우 가계에 보탬이 되기 위하여 맞벌이를 한다는 경우가 여성 51.8%, 남성 53.8%, 자녀교육비 마련은 여성 12.1%, 남성 7.2%이며 능력 발휘 및 희망직에 종사하기 위해 맞벌이를 한다는 경우는 여성 31.5%, 남성 32.2%를 차지하는 것과(함인희, 한정자, 2001:208) 같이 한국사회에서 맞벌이가구의 형성은 대부분 경제적 목적이 주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부인홀벌이가구와 부부비취업가구의 남성과 여성의 학력은 중졸이하의 학력이 다른 가구형태보다 많다는 것이 특징이고 부인홀벌이가구 여성의 직업도 서비스/판매직이 41.3%, 기능/조립/단순노무직이 45.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결국 부인홀벌이가구와 부부비취업가구의 사회경제적 상황이 다른 가구들보다 열악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종사상지위별로 살펴보면 맞벌이가구 남성의 고용주/자영자의 비율이 전통형가구 남성보다 많고 전통형가구의 남성은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높다. 맞벌이가구의 여성은 남성들보다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이 높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부인홀벌이가구의 여성은 무급가족종사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여성이 혼인과 출산으로 단절된 노동경력에서 다시

노동시장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을 선택하거나 가족의 일을 돕는 방식을 선택한다는 기존의 연구들(김태홍·김미경, 2002)과 같은 맥락이다. 또한 한국사회에서 맞벌이가구는 남편이 서비스/판매업을 하는 고용주나 자영자 가구에서 여성이 무급가족종사자로 일하는 형태로 많이 나타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결국 TV에서 멋있는 커리어우먼으로 등장하는 전문직의 여성은 맞벌이주부 가운데 소수집단이며 식당의 서빙 근로자, 파출부, 공장의 조립라인에서 임금근로자로 맞벌이를 하고 있는 주부들과 우리 이웃의 슈퍼, 세탁소, 통닭집, 미장원 아주머니 등 자영자나 무급가족종사자로 일하는 맞벌이주부들이 우리의 눈에 더 잘 보인다는 상식과 일치한다.

유급노동시간을 살펴보면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주당 35시간 이하로 시간제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맞벌이가구의 여성은 23.9%가 부인홀벌이가구의 여성은 17.8%가 주당 35시간이하의 시간제노동을 하고 있었다. 남성들의 경우에는 90%이상이 모두 주당 36시간이상의 전일제 노동을 하고 있었으며 맞벌이가구의 남성들보다 전통형가구의 남성들이 전일제로 노동하는 경우가 약간 높게 나타난다. 이는 남성이 생계부양자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가족모델이 맞벌이가구의 경우에도 적용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맞벌이 가구 여성의 노동시간을 종사상 지위에 따라 살펴보면 임금근로자나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간에 시간제와 전일제의 비율에 있어서 차이가 나지 않는다¹⁰⁾. 이러한 사실은 남편이 자영자나 고용주로 일하고 여성이 이 일을 도와 무급가족종사자로 일하는 경우에도 여성들의 노동시간이 짧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구형태별로 살펴보면 맞벌이를 하는 가구의 직계가족비율이 전통형가구의 경우보다 많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특징은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 2%표본자료를 분석한 김태홍·주재선의 연구에서도 나타났다(김태홍·주재선, 1997). 맞벌이를 하는 경우 집안 가사일이나 아이돌보

10) 여성이 임금근로자로 맞벌이를 하는 경우 시간제의 비율은 25.4%, 자영자로 맞벌이를 하는 경우 시간제의 비율은 21.3%, 무급가족종사자로 맞벌이를 하는 경우 시간제의 비율은 23.6%로 나타난다.

기를 친인척에게 맡기거나 보조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은 점(김태홍·김미경, 2002 : 156)을 생각해 볼 때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자원으로서 직계가족형태를 유지한다고 할 수 있다. 부인홀벌이가구와 부부비취업가구의 경우에는 전통형가구에 비해 직계가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다른 가구형태에서보다 부부가족의 형태가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이들의 연령이 40, 50대였던 점을 상기한다면 생애과정상 나타나는 특징으로 생각된다.

지역별로는 맞벌이가구와 전통형가구는 서울지역에서 부인홀벌이가구는 6대 광역시지역에서, 부부비취업가구는 기타도 지역에서의 비율이 다른 가구형태에 비해 약간 높다는 점이 특징이다. 조사요일별로는 평일이 약 60%, 토요일 약 20%, 일요일 약 20%로 이는 조사설계에서부터의 할당비율과 같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IV. 시간부족인식의 정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시간부족인식의 정도

1999년 『생활시간조사』 자료에는 ‘평소 바쁘거나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간부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¹¹⁾ 맞벌이 주부들은 이 질문에 대해 어느 정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날 것인가? 이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분석대상가구의 부부의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서 유급노동시간, 무급노동시간,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시간의 합인 총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의 평균 및 시간부족 인식에 대한 응답비율과 그 이유를 분석하였다.

11) 이 질문에 대해서 전체 조사대상자 85906명 중 57434명(66.9%)이 평소 바쁘거나 시간부족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고 응답하고 있었고 그 중 20784(24.2%)명은 항상 바쁘거나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시간부족을 느낀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그 원인으로 지적한 것은 ‘일(학습)때문에’ 59.9% > ‘자녀양육 및 집안일 때문에’ 16.5% > ‘교제 및 사회활동 때문에’ 9.4% > ‘시간관리를 잘못해서’ 8.6% > ‘이동시간이 길어서’ 4.5 > ‘기타’ 1.1%의 순이다.

[표 4]에서 먼저 유급노동시간, 무급노동시간, 총노동시간, 여가시간의 양을 살펴볼 때 나타나는 특징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들의 유급노동시간이 여성들보다 항상 많으며 무급노동시간은 대부분 여성들이 책임지고 있어 성역할분담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맞벌이를 하는 남성들의 경우에도 전통형가구의 남성들과 무급노동시간의 차이가 나지 않거나 오히려 적다. 특히 부인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부인홀벌이가구의 무급노동시간에서도 여성의 유급노동시간이 절대적으로 길지만 남성의 무급노동시간은 68분밖에 안되며 오히려 여성의 무급노동시간이 176분으로 남편의 2.5배에 달하고 있다. 부부비취업가구의 경우에도 남성과 여성 모두 유급노동시간이 적게 나타나지만 무급노동은 여전히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호크쉴드가 미국에서 12년동안 심층면접방법을 통하여 맞벌이가구 여성의 이중부담을 관찰한 경우 맞벌이 가정의 남편이 전업주부를 아내로 둔 남편에 비해 집안일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사실과도 같은 결과이다(Hochschild, 1989 : 237). 우리는 흔히 맞벌이를 하는 남성들이 여성들의 일을 도와주거나 아니면 동등한 입장에서 같이 하는 경우를 주위에서 듣거나 언론보도를 통하여 접하곤 한다. 그러나 실제 그들이 하는 일들은 전통형가구의 남성들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통계치가 보여준다. 사회의 성평등에 대한 압력과 경험의 남성이 여성과 함께 가사일도 해야 한다는 의식을 높이고 있을지는 모르지만(함인희·한정자, 2001) 실제 그들의 가정 안에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총노동시간과 시간부족에 대한 주관적 인식

가구 구분	맞벌이가구		전통형가구		부인홀벌이가구		부부비취업가구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총노동시간(분)	455.5	566.0	435.5	400.3	102.1	566.7	108.8	369.6
유급노동시간(분)	427.5	341.5	405.9	7.9	34.7	391.0	47.6	16.8
무급노동시간(분)	28.1	224.5	29.6	392.5	67.5	175.7	61.2	352.8
여가시간(분)	259.3	191.4	263.1	338.0	568.9	175.4	553.2	354.3

가구 구분		맞벌이가구		전통형가구		부인홀벌이가구		부부비취업가구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평소 바쁘거나 시간이 부족하다 (명(%))	예, 항상	33.5	42.4	29.9	10.7	5.8	45.2	4.4	9.8
	예, 가끔	46.1	44.4	50.9	48.5	19.8	39.5	22.8	34.2
	아니오, 거의	16.1	10.8	15.9	31.7	44.2	10.9	48.9	39.4
	아니오, 전혀	4.3	40.1	3.3	9.2	30.2	4.4	23.9	16.6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소 바쁘거나 시간이 부족 이유 (명(%))	일(학습) 때문	70.0	52.3	70.6	6.4	31.8	61.1	37.8	7.2
	자녀양육 및 집안일때문	6.8	35.6	4.1	71.2	18.0	29.0	9.9	66.7
	시간관리 잘못	5.0	4.3	5.9	11.6	19.6	2.6	15.3	8.3
	교제 및 사회활동때문	10.6	4.4	12.0	7.7	18.0	2.9	24.3	12.2
	이동시간이 많이 걸려서	6.6	2.8	6.7	2.0	11.6	3.5	8.1	2.8
	기타	1.0	0.7	0.8	1.2	1.1	1.0	4.5	2.8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통계청(1999),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둘째, 맞벌이를 하는 여성들은 전업주부가 하는 무급노동의 약 57%만을 하고 있었고, 부인홀벌이가구 여성의 무급노동시간이 가장 적게 나타났다. 그런데 이러한 유급노동, 무급노동, 총노동시간의 양을 여성의 종사상지위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면 임금근로자로 있는 맞벌이 주부들이 가장 많이 무급노동의 양을 줄이고(216.3분), 무급가족종사자로 일하는 여성의 경우에는 무급노동의 양을 가장 줄이지 못하고 있었다(245.1분). 이는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집과 직장이 한 곳이거나 가까운 경우가 대부분으로(박민자, 1988) 집에서 직장이 가까운 경우 유급노동과 가족일 그리고 다른 행동들이 연계되어 나타나며(조성혜, 1995) 이때 가사일을 줄이는 것이 더욱 어렵다는 점을 말한다. 한편 무급가족종사자들의 유급노동시간(334.3분, 임금근로자 여성 336.6분)도 다른 맞벌이 주부들 못지않게 길어서 총노동시간이 가장 긴 집단이며(579.4분) 무급가족종사자라는 말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²⁾ 남성보다 유급노동의 시간이

12) 무급가족종사자 여성들의 하루생활을 살펴보면 그들은 아침 5-6시에 일어나서 식사 준비하고 도시락 싸고 아이들 깨워서 아침먹인 뒤 학교에 보내고 가게로 출근하는

적기는 하지만 분명 그녀에게 그 일은 무급의 가족종사자가 아닌 자신의 직업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³⁾

셋째, 주목할만한 점은 맞벌이 남성들의 유급노동시간이 전통형가구의 남성들보다 길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에서 일하는 아버지들이 집안일을 돕기 위해 근무시간을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늘리고, 어린자녀를 둔 남자들이 자녀가 없는 남성들에 비해 시간외 근무를 훨씬 더 많이 한다는 조사결과들(Hochschild, 1989 : 237)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남성들이 가족일을 피하기 위해 유급노동시간을 늘리거나 생계부양자로서의 남성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유급노동시간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유급노동시간과 무급노동시간을 합한 총노동시간은 맞벌이를 하는 경우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약110분정도 많고, 여가시간은 맞벌이를 하는 경우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약 68분정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전통형가구의 여성은 남성보다 총노동시간은 35분정도 적고 여가시간은 75분정도 길게 나타났다. 부인홀벌이가구의 경우에는 여성의 총노동시간이 460분정도 길고 여가시간이 390분 적으며 부부비취업가구의 경우에도 여성의 총노동시간이 남편보다 260분 정도 길고 여가시간이 200분정도 적었다.

다음으로 시간부족인식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맞벌이 가구의 경우

것이 보통이다. 가게에 도착하면 물건정리를 남편과 같이 하고 판매도 하면서 점심 식사 준비를 해서 먹고 설거지 한 뒤 또 판매도 하고 가게청소, 배달, 장사에 필요한 준비(수퍼의 경우 물건정리, 채소·과일가게의 경우 다듬는 일 등) 등을 한다. 저녁식사는 집에 가서 해 놓고 아이들이랑 먹은 뒤 남편상을 차려 놓고 가게로 나와서 남편과 교대하는 경우도 있고 자녀들과 함께 가게에서 같이 하는 경우도 있다 (박민자, 1988 : 109).

- 13) 무급으로 가족을 위해 일하는 여성들의 경우 가족의 소득증대를 위해 그녀의 노동이 필수적이고 장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나 남편을 지원하는 가족의 보조자로서 인식되고, 자신의 직업이 아닌 남편의 직업으로써 명시되며, 급료가 없고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는다고 해서 비생산적 노동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이들의 노동은 노동으로 취급되지 않고 가족이나 부부간의 애정으로 여겨질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무급가족종사자 여성에게 사회적 경제활동참여가 자녀를 보살피고 가사노동이 완수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도록 함으로써 무급노동에 대한 책임을 전가시키고 여성의 일이 여성의 권력증대로 이어지지 못하도록 한다. 자영소상인 가족에서 무급가족종사자의 위치와 그들의 이데올로기에 대해서는 박민자(1988)의 글을 참조할 것.

남성들은 시간이 부족하다고 항상 또는 가끔 느끼는 경우가 약 80%이지만 여성들의 경우에는 약 87%를 보여 맞벌이를 하는 경우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욱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항상 시간부족을 느끼는 경우는 맞벌이주부의 경우 40%가 넘고 있다. 이는 『생활시간조사』 전체 응답자들의 66.9%가 시간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항상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경우는 24.2%라는 점을 생각하면 상당히 높은 비율이다. 미국사회와 비교해서도 1995년 전체 응답자 중 29%가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하고, 1993년 여성의 경우 항상 또는 가끔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58%라는 점(Robinson & Godbey, 1997 : 234-235)을 상기하면 매우 높은 비율이다. 전통형가구의 경우에는 남성 81%가 시간이 항상 또는 가끔 부족하다고 느끼는 반면 여성은 59%만이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단지 10.7%만이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어 전업주부 여성들은 남편이나 다른 어떤 집단보다도 시간부족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⁴⁾ 또한 부인홀벌이가구의 여성들의 경우에는 시간이 항상 부족하다는 비율이 45.2%로 맞벌이가구 여성들보다 더 높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가구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으면서도 남성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서 시간부족에 대한 인식이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부부비취업가구의 남성과 여성은 평소 바쁘거나 시간이 부족하다는 비율이 가장 낮고 거의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국 가구형태별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남성과 여성의 시간부족

14) 전업주부의 시간부족인식이 가장 낮은 결과는 화폐가치를 통한 사회적 인정의 메카니즘이나 그들의 노동상황과 관련이 있는 듯 하다. 여성노동의 가치가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여성들이 주로 부담하고 있는 무급노동은 화폐를 통한 사회적 인정의 메카니즘에서 배제되어 있다. 이것은 화폐에 의해 식민화된 시간이해 방식 속에서는 무급노동에 사용된 시간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무의미하거나 의미가 떨어지는 일에 사용된 시간은 '바쁘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도 떨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이 때문에 총노동시간량이 많다고 해서 곧장 주관적 시간부족인식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가족의 일을 담당하는 전업주부들과 총노동시간은 길지만 무급으로 가족에 종사하는 맞벌이주부들의 시간부족인식이 낮은 이유일 것이다. 무급의 노동은 비록 힘들고 지루하고 짜증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자신의 목소리로 바쁘다고 주장하지는 못하는 것이다(박영도, 2002 : 18).

인식이 모두 높은 가구는 맞벌이가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간이 부족한 이유를 살펴보았다. 맞벌이 주부들은 ‘일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었지만 ‘자녀양육 및 집안일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경우도 36%에 이르렀다. 그러나 남성들의 경우는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는 ‘일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고 다음의 이유가 ‘교제 및 사회활동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그 다음의 이유가 ‘자녀양육 및 집안일 때문’이다. 맞벌이를 하는 남성들은 ‘자녀양육 및 집안일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전통형가구의 남성보다는 많지만 그 비율이 여성들보다는 월등히 낮아 집안일은 여성의 일이라는 의식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맞벌이 주부들이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유급노동과 무급노동 사이에서 시간의 줄다리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업주부들은 70.6%가 시간이 부족한 이유로 ‘자녀양육 및 집안일 때문’을 지적하고 다음이 ‘시간관리를 잘못해서’ 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부인홀벌이가구의 남성은 32%의 사람들이 ‘일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그 외의 다른 이유들도 고른 응답분포를 보여준다. 부인홀벌이가구의 여성은 역시 ‘일’과 ‘자녀양육 및 집안일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지만 연령이 높고 미혼막내자녀의 연령이 높았던 점 때문에 맞벌이주부보다는 ‘자녀양육 및 집안일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간 낮다. 부부비취업가구의 경우에는 남성은 ‘일’과 ‘교제 및 사회활동 때문에’, 여성은 ‘자녀양육 및 집안일’과 ‘교제 및 사회활동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여 유급노동을 하지 않는 부부들의 경우에도 남녀의 성역할 분리는 계속되고 있었다.

위의 결과에서 보듯이 총노동시간이 가장 긴 맞벌이가구와 부인홀벌이가구의 여성들이 그리고 가구형태별로는 맞벌이가구의 부부들이 가장 높은 시간부족인식의 정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는 서구사회에서 맞벌이가구와 맞벌이부부 중 여성의 시간부족인식이 다른 가구형태나 여성보다 높다는 연구결과와도 같은 결과이다. 하지만 전통형가구의 전업주부와 부부

비취업가구의 여성들의 총노동시간이 상당히 길지만 시간부족인식은 낮다는 점을 볼 때 총노동시간을 구성하는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이 시간부족인식에 서로 다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유급노동시간, 무급노동시간, 여가시간의 양과 시간부족인식의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해보았다. [부표 2]에서 보듯이 평일에 유급노동시간이 1시간 증가할 때 1점에서 4점을 가지는 시간부족인식 점수는 0.06점 증가하고, 무급노동시간이 1시간 증가할 때 시간부족인식 점수는 0.03점 증가하며, 여가시간이 1시간 증가할 때 시간부족인식 점수는 0.05점 감소한다. 결국 시간부족인식과 유급노동, 무급노동시간은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지만 유급노동시간이 더욱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여가시간은 시간부족인식과 부(-)적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시간부족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응답자들이 가진 개인적 상황, 가족상황, 노동상황 등은 이러한 시간부족 인식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 것인가? 맞벌이주부들 중에서도 어떤 집단의 시간부족인식이 특히 높게 나타날 것인가? 이를 알아보기 위해 시간이 항상 또는 가끔 부족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령, 학력, 직업, 유급노동시간, 미혼막내자녀의 연령, 가구형태에 따라서 시간부족인식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것이 다음의 [표 5]이다.

각 변수들의 범주 간 차이를 살펴보면 먼저 연령별로는 젊은 사람들일수록 모든 집단에서 시간부족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나고 특히 20대와 30대의 시간부족인식이 높다는 것이 특징이다. 가구형태별로 차이는 점은 부인홀벌이가구, 부부비취업가구에서는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의 시간부족인식이 남성보다 높으며 부인홀벌이가구 여성은 연령에 관계없이 시간부족인식이 매우 높다. 맞벌이가구의 경우에는 30대와 50대에서 여성의 시간부족인식이 남성보다 더 높다는 것이 특징이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부부비취업가구의 남성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직업별로는

전문/관리직과 준전문/사무직의 시간부족인식이 판매/서비스직과 기능/조립/단순노무직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여성이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전문직에서 임금근로자로 종사하는 경우 96%가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여(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그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표 5> 상황변수들과 시간부족인식

단위 : %

가구 구분		맞벌이가구		전통형가구		부인홀벌이가구		부부비취업가구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연령	20대	89.3	88.0	85.1	55.4	53.3	83.9	23.5	46.5
	30대	85.3	88.5	85.4	63.9	41.3	88.4	42.5	50.0
	40대	78.4	71.4	78.6	57.5	24.3	84.0	24.0	46.7
	50대	70.0	79.4	69.2	49.6	15.8	82.3	20.8	35.6
	χ ² 값(유의도)	192.7***	62.9***	191.2***	101.8***	71.6***	16.2	74.5***	27.0*
교육 수준	중졸이하	67.2	83.3	68.8	47.7	13.0	79.6	25.0	36.5
	고졸	81.6	88.5	79.4	59.9	28.7	90.3	25.8	50.0
	전문대졸이상	87.3	89.9	87.3	71.0	45.7	91.9	33.3	54.1
	χ ² 값(유의도)	269.5***	72.0***	237.6***	240.5***	72.4***	26.6**	6.6	25.1**
직업	전문/관리직	87.0	94.8	87.7	-	-	87.5	-	-
	준전문/사무직	87.2	88.7	85.0	-	-	92.7	-	-
	서비스/판매직	78.2	85.3	79.1	-	-	81.6	-	-
	기능/조립/단순노무직	76.1	86.8	76.7	-	-	85.6	-	-
	χ ² 값(유의도)	113.3***	70.8***	118.3***	-	-	14.5	-	-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80.9	87.3	81.0	-	-	84.4	-	-
	고용주/자영자	78.9	87.7	80.2	-	-	86.5	-	-
	무급가족종사자	54.7	85.2	-	-	-	-	-	-
	χ ² 값(유의도)	58.8***	21.0*	-	-	-	0.4	-	-
유급 노동 시간	35시간이하	57.0	80.4	63.3	-	-	83.2	-	-
	36시간이상	81.7	88.8	82.0	-	-	85.1	-	-
	χ ² 값(유의도)	261.8***	290.4***	137.8***	-	-	26.9***	-	-
미혼 만녀 연령	만6세 이하	86.8	91.0	84.4	65.2	34.9	85.7	43.9	55.6
	만7세-12세	81.1	87.6	83.2	61.0	35.1	93.9	16.3	38.6
	만13세-18세	75.2	88.0	77.7	57.0	21.6	91.4	24.7	52.4
	만19세 이상	67.9	85.2	68.0	51.8	12.8	80.8	26.4	40.9
	χ ² 값(유의도)	200.7***	60.8***	186.4***	74.4***	46.4***	53.1***	37.6***	23.3*

가구 구분		맞벌이가구		전통형가구		부인홀벌이가구		부부비취업가구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가구 형태	부부가족	81.3	77.4	79.4	38.7	32.8	75.9	16.2	21.6
	핵가족	79.9	87.7	82.2	60.7	23.2	87.4	31.4	47.0
	직계가족	77.4	90.0	78.6	67.1	30.6	81.6	17.2	50.0
	2인2집(유의도)	16.7	95.2***	15.5	169.2***	8.6	12.5	19.6*	36.7***

주: 1) * $P < 0.01$, ** $P < 0.001$, *** $P < 0.0001$.

2) 주: '평소 바쁘거나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질문에 '예-항상, 예-가끔'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다.

자료: 통계청(1999),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20, 30대의 학력이 높은 전문/관리직을 중심으로 시간부족인식이 높다는 결과는 서구의 연구결과들과도 같은 결과이다(Robinson & Godbey, 1997: 233-238).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사람들은 과중한 노동량, 노동속도와 노동강도에 대한 반응의 하나로 객관적인 실제 노동시간보다 더 많이 일하고 있다고 느끼고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결과(Robinson & Godbey, 1997: 81-96)나 비교적 자율적인 노동을 하고 있는 전문직이나 경영직 종사자들의 경우 일을 떠나서도 항상 일의 내용에 대해 생각한다는 노동의 성격과 여가보다 일이 주된 삶의 관심이고 여가에 일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다는 서구의 기존연구(Parker, 1983: 89)를 참조한다면 이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당 유급노동시간별로 살펴보면 남성들의 경우 주당 35시간 이하로 일하는 사람들과 주당 36시간이상 일하는 사람들의 시간부족인식 차이가 여성들보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들의 경우에는 주당 36시간 이상 유급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시간부족인식이 높기는 하지만 주당 35시간 이하로 일하는 사람들도 주당 36시간 이상 유급노동을 하는 남성들만큼이나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이고 전통적으로 기대되는 성역할관념에 따른 남성과 여성의 경험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 같다. 즉 남성들은 전통적으로 공적영역에서의 생계부양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적은 노동을 하고 있을 때에는 전통적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관념 때문에 자신의 노동시간에 대해 과소평

가하고 이것이 시간부족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반면 여성들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가사노동담당자 역할에 유급노동시간까지 부과되게 되면 그들의 이중부담에 의해 평균적으로 여성은 남정보다 생활에서 더욱 급하고 시간에 쫓기는 감정을 가지게 되어 주당 35시간 이하로 일하는 여성들도 시간부족인식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미혼막내자녀의 연령별로는 모든 집단에서 만6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이 있을 경우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다. 미혼막내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시간부족인식은 낮아지고 있다. 특히 맞벌이를 하는 여성들의 경우 미취학 아동이 있을 경우 시간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90%를 넘고 있어 그 부담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인홀벌이가구의 경우에는 자녀가 초등학생인 만7세-만12세인 경우에 시간부족인식이 미취학아동이 있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난다.

지금까지 이중부담으로 인한 시간부족 인식의 주요 집단은 주당36시간 이상의 전일제 노동을 하면서 특히 미취학 자녀를 가진 맞벌이주부들의 경우라고 지적되어 왔던 점(Hochschild, 1989)을 고려하여 남편과 부인이 주당 36시간 이상 전일제로 일하고 있는 맞벌이 주부들의 경우 미취학자녀의 유/무에 따라서 시간부족인식이 어떠한 차이를 가지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일제로 일하는 맞벌이가구의 여성은 미취학자녀가 있을 경우 시간부족인식의 정도가 92.3%로 전일제로 일하지만 미취학자녀가 없는 여성의 87.8%보다 높다. 부인홀벌이가구 여성의 경우에도 미취학자녀가 있을 경우 91.5%가 시간이 부족하다고 인식하였으며 미취학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84.4%가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가구형태별로 살펴보면 남정보다는 여성들이 가구형태에 따라서 시간부족인식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 가구의 경제활동 상태별로는 맞벌이가구와 부인홀벌이가구의 남성은 부부가족형태에서 전통형가구와 부부비취업가구의 남성은 핵가족형태에서 시간부족인식이 높다. 반면 여성들은 부인홀벌이가구의 여성을 제외한 모든 가구의 여성들이 직계가족의 형태에서 시간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미취학아동의 경우에도 가구

형태에서나 가구 내에 돌볼가구원이 많아진다는 것은 결국 여성들의 책임으로 이는 여성에 의해 수행되어 오던 가족돌보기의 책임이 맞벌이를 하는 여성들의 경우에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면서 시간부족인식에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가구형태별 시간부족인식은 여성이 미취학아동이 있으면서 전일제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면 다른 양상을 보인다. 즉 미취학아동이 있으면서 전일제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경우 핵가족 형태(항상 시간부족 50.2%)가 직계가족 형태(항상 시간부족 48.3%)보다 시간부족에 대한 인식이 높지만, 미취학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직계가족 형태(항상 시간부족 52.4%)가 핵가족 형태(항상 시간부족 47.8%)보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난다. 이는 미취학자녀가 있을 경우 직계가족에서 부부이외의 구성원이 미취학자녀를 돌보아줄 가족원의 존재로서 인식되는 반면 미취학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직계가족에서 부부이외의 구성원이 부부가 돌보아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3) 맞벌이주부의 노동상황과 가족상황에 따른 시간부족인식

부부의 경제활동상태는 배우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부부의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가구분류를 통해 시간부족인식의 정도를 알아보았다. 맞벌이부부의 종사상지위¹⁵⁾와 노동시간에 따른 부부의 결합형태별로 살펴보았다.

15) 한국의 맞벌이 가족이 가지는 특성이 몇 가지 있다. 먼저, 맞벌이를 하는 여성들이 모두 임금생활자의 위치에만 있는 것이 아니며 한 가족 내에서 소자본을 중심으로 한 자영업자들이 여성의 노동력을 무급가족종사자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손승영 외, 1999)는 점이다. 이에 남편이 고용주나 자영자이고 부인이 무급가족종사자로 있는 맞벌이부부의 형태가 많다. 둘째, 한국여성들의 경우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고 결국 여전히 M자형 취업곡선을 보이며 기혼여성들의 경우 경력단절에서 오는 불리함 때문에 자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성지미, 2002). 따라서 본 글의 맞벌이 가구의 부부의 종사상지위에 따른 결합형태는 남편이 임금근로자, 부인이 임금근로자인 경우와 남편이 고용주나 자영자이면서 부인이 무급가족종사자인 경우, 남편과 부인이 모두 고용주/자영자인 세 가지 경우를 살펴보았다.

<표 6> 맞벌이부부의 노동상황에 따른 시간부족인식

단위:%

구 분	부부의 결합형태		시간부족인식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전체	case(가구)
종사상지위	임금	임금	81.3	87.7	84.5	6550
	고용·자영	고용·자영	74.1	88.3	81.2	818
	고용·자영	무급	81.3	85.4	83.4	3852
노동시간	전일제	전일제	81.9	89.1	85.4	10092
	전일제	시간제	81.3	86.5	82.6	2262
	시간제	전일제	59.0	80.9	76.8	1892
	시간제	시간제	54.1	77.3	64.6	486

주: '평소 바쁘거나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질문에 '예-항상, 예-가끔'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다.

자료: 통계청(1999),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위의 [표 6]에서 보듯이 모든 맞벌이부부의 결합형태에서 남성보다는 여성의 시간부족인식이 높다는 점이 특징이다. 먼저 부부의 종사상지위에 따른 시간부족인식의 정도를 살펴보면 남편과 부인이 모두 임금근로자로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 시간부족인식의 정도가 가장 높으며 부부가 모두 전일제로 일하는 경우에 시간부족인식의 정도가 높다. 남성과 여성을 나누어 살펴보면 여성은 남편과 자신이 고용·자영자로 일하는 경우에 시간부족인식의 정도가 높고 남성은 임금근로자인 경우와 아내를 무급가족종사자로 두고 있는 고용·자영자들의 시간부족인식정도가 높다. 무급가족종사자들의 경우 앞에서 총노동시간이 다른 어느 맞벌이주부보다도 긴 것으로 나타나는 데 비해 시간부족인식은 다른 종사상위치의 맞벌이주부보다 낮게 나타나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무급'으로서 언명된 그들의 위치가 시간부족인식에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노동시간별로 살펴보면 남편이 전일제로 일하는 맞벌이주부들의 시간부족인식의 정도가 자신이 전일제이고 남편이 시간제로 일하는 여성들보다 높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결과는 앞의 서구사회에서 남편의 노동시간이 길수록 시간부족인식의 정도가 높다는 연구결과와 같은 결과이다.

그러면 맞벌이주부들은 그들이 가진 가족상황, 즉 미혼막내자녀연령과 가구형태에 따라 시간부족인식의 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7]에서 보듯이 직업별로는 전문/관리직의 시간부족인식이 미혼막내자녀의 연령이나 가구형태의 어떤 범주에서도 다른 직업집단에 비해 모두 높다는 특징이 나타난다. 종사상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와 고용주/자영자들의 시간부족인식이 미혼막내자녀의 연령이나 가구형태의 어떤 범주에서도 무급가족종사자들보다 높다. 가족형태의 경우 임금근로자와 고용주/자영자들은 직계가족의 형태에서 시간부족인식의 정도가 높지만 무급가족종사자들은 핵가족의 형태에서 시간부족인식의 정도가 높다. 미혼자녀의 연령별로는 자녀가 초등학교이하인 만12세 이하일 때에는 시간부족인식이 90%를 넘고 있어 그 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 전일제 맞벌이주부의 미취학자녀와 가구형태에 따른 시간부족인식

단위: %

가구형태 구분		종사상지위			직업			
		임금 근로자	고용/ 자영자	무급가족 종사자	전문/ 관리직	준전문/ 사무직	판매/ 서비스직	기능/조립/ 단순노무직
미혼 자녀 연령	만6세 이하	91.9	93.5	92.1	96.2	92.9	91.6	91.6
	만7세-12세	91.3	93.9	90.1	100.0	91.5	88.4	93.9
	만13세-18세	89.0	89.5	90.2	100.0	96.0	89.4	88.0
	만19세 이상	87.5	84.7	80.2	85.7	85.0	83.4	86.3
가구 형태	부부가족	83.3	75.0	71.1	95.2	82.7	73.1	81.0
	핵가족	90.0	90.6	89.4	97.7	91.9	88.9	89.8
	직계가족	92.1	92.1	87.3	96.1	95.7	87.8	91.7

주: '평소 바쁘거나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질문에 '예-항상, 예-가끔'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다.

자료: 통계청(1999),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V. 시간부족인식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의 통제

지금까지 부부의 경제활동상태별 가구형태에 따라, 특히 맞벌이주부의 시간이 부족하고 바쁘다는 인식이 그들의 개인상황, 가족상황, 노동상황 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러나 각 상황변수들이 가진 시간부족인식과의 관계는 다른 변수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상쇄될 수도 있으며 증폭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전문/관리직의 높은 시간부족 인식은 그들의 주당 노동시간이나 성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따라서 각 상황변수와 시간부족인식과의 관계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기위해서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분석해 보아야 한다. 그 결과를 로짓(logit) 분석을 통하여 나타낸 것이 다음의 [표 9]이다.

[표 8]에서 보듯이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통제할 때 여성은 남성보다 2.5배 시간부족인식이 높게 나타난다. 유급노동시간 범주 간에 시간부족인식이 차이 나는 정도 다음으로 성에 따른 시간부족인식의 차이가 크다. 이는 우리사회가 성에 의한 경계가 뚜렷하다는 점이 시간부족인식의 정도에서도 나타나는 것이라 생각된다. 연령별로는 다른 변수들이 통제될 때 50대에 비해 20대는 1.1배, 30대는 1.3배, 40대는 1.2배 시간부족인식이 높다. 이러한 결과는 30대와 40대는 가족과 직장 안에서 완수해야 될 임무가 가장 많은 연령층이라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직장에서 업무가 가장 바쁘고 생활의 안정을 누리기 이전의 상태에 있으면서 기혼의 경우에는 자녀가 이미 성장하여 개별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50대이상의 연령층과는 다르다. 결국 직장이나 가정에서 요구되는 역할이 가장 많은 30대와 40대 연령층을 중심으로 시간이 부족하고 바쁘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교육수준별로는 전문대졸이상자들보다 중졸이하는 2배, 고졸은 1.4배 시간부족인식을 덜 느끼고 있었다. 직업별로는 서비스/판매직, 기능/조립/단순노무직보다 전문/관리직은 1.4배, 준전문/사무직은 1.2배 더 시간부족인식이 높았다. 그러나 서비스/판매직은 기능/조립/단순노무직보다 오히려 시간이 부족하고 바쁘다는 인식이 낮게 나타났다. 결국 고학력의 전문/관리직을 가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시간부족인식이 높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표 8> 시간부족 인식에 대한 로짓(logit)분석

구 분	범 주	계수(odds ratio)	표준오차
Y절편		0.306 ***	0.07
성	남성	-1.00(0.4) ***	0.04
	여성		
연령	20대	0.101(1.1)	0.07
	30대	0.291(1.3) ***	0.06
	40대	0.197(1.2) ***	0.05
	50대	준거범주	
교육수준	중졸이하	-0.735(0.5) ***	0.05
	고졸	-0.338(0.7) ***	0.04
	전문대졸이상	준거범주	
직업	전문/관리직	0.321(1.4) ***	0.08
	준전문/사무직	0.185(1.2) **	0.05
	서비스/판매직	-0.135(0.9) *	0.05
	기능/조립/단순노무직	준거범주	
종사상지위	임금근로자	0.198(1.2) *	0.07
	고용주/자영자	0.316(1.4) ***	0.07
	무급가족종사자	준거범주	
유급노동시간	없음	준거범주	
	35시간이하	1.004(2.7) ***	0.09
	36시간이상	1.889(6.6) ***	0.08
가구형태	부부가족	-0.272(0.8) ***	0.07
	핵가족	-0.102(0.9)	0.04
	직계가족	준거범주	
미혼막내자녀 연령	만 6세이하	0.412(1.5) ***	0.06
	만7세-12세	0.215(1.2) **	0.06
	만13세-18세	0.194(1.2) ***	0.05
	만19세이상	준거범주	
지역	서울	0.218(1.2) ***	0.05
	경기	0.125(1.1) *	0.05
	6대광역시	-0.027(1.0)	0.03
	기타	준거범주	
-2로그우도		38025.155	
자유도(d.f.)		21	

주 : *P<.01, **P<.001, *** P<.0001.

자료 : 통계청(1999),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중사상지위별로는 무급가족종사자보다 고용주/자영자는 1.4배, 임금근로자는 1.2배 시간부족인식이 높았다. 이는 임금근로자의 경우 고용주/자영자에 비해 시간활용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시간부족인식이 더욱 높을 것이라는 생각과는 다른 결과이다. 유급노동시간별로는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시간제로 노동하는 사람들은 2.7배, 전일제는 6.6배 시간부족인식이 높게 나타난다. 유급노동시간의 정도에 따라서도 시간부족인식의 격차가 아주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구형태별로는 직계가족보다 부부가족은 1.3배, 핵가족은 1.1배 시간부족인식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직계가족형태가 시간부족인식을 가중시키는 가족형태임을 알 수 있다. 미혼 막내자녀의 연령별로는 미혼자녀가 만19세 이상일 때보다 만6세 이하의 미취학아동이 있는 경우 1.5배, 만7세-12세는 1.2배의 시간부족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시간부족인식이 높아진다.

VI. 연구결과 요약 및 결론

본 글은 시간이 가장 부족한 집단으로 인식되어 온 기혼의 취업여성 즉, 맞벌이주부들을 중심으로 시간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정도에 대한 직접적인 결과를 제시해 보고 맞벌이 주부들의 시간이 부족하다는 인식에 영향을 주는 상황 및 다른 집단들과의 시간부족인식에 있어서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른 중요한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맞벌이가구의 남성과 여성은 다른 가구형태의 남성과 여성에 비해 모두 시간부족인식이 높았다. 특히 맞벌이가구 여성과 부인홀벌이가구 여성들의 경우 약 87-90%가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특히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42-45%를 넘어 다른 집단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 특징이었다. 맞벌이주부들은 시간이 부족한 가장 큰 두 가지의 이유로 '일'과 '자녀양육 및 집안일'을 꼽고 있었다. 그

러나 남성들은 ‘일’ 다음으로 ‘교제 및 사회활동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맞벌이주부들은 일과 가족 사이에서의 이중부담으로 시간부족인식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시간부족인식과 생활시간의 관계를 보면 유급노동, 무급노동 시간은 시간부족인식과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지만 유급노동시간이 더욱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여가시간은 시간부족인식과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이중부담을 가지는 맞벌이주부들의 총노동시간 논의를 통해 그들의 바쁜 일상을 설명하려는 논의들이 합당하다는 것을 말한다.

시간부족인식과 관련이 있는 상황변수들로는 30, 40대의 학력이 높은 전문/관리직을 중심으로 시간부족인식이 높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특히 여성이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전문직에서 임금근로자로 종사하는 경우 96%가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여 그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남편과 부인이 모두 임금근로자인 맞벌이가구와 부부가 모두 전일제로 일하는 맞벌이가구의 경우에 시간부족인식의 정도가 높았다. 가족형태별로는 직계가족의 형태에서 그리고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시간부족인식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전일제의 맞벌이가구 여성들 중 미취학아동을 가진 이들은 92.3%가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여 다른 어떤 집단보다도 높은 시간부족인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이 부족하고 바쁘다는 인식은 다른 인적상황, 노동상황, 가족상황들을 모두 통제하였을 때 여성은 남성보다 2.5배, 시간제로 유급노동을 하는 사람은 유급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보다 2.7배, 전일제로 유급노동을 하는 사람은 유급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보다 6.6배 시간부족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모두 서구사회에서의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살아가는 집단들로 주목된 집단들이며 한국사회의 특징이라면 직계가족형태가 여성의 시간부족인식의 또 다른 증가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여성이 미취학아동을 데리고 전일제로 일하는 경우 직계가족형태는 여성의 시간부족인식을 낮추어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다른 서구사회와는 다르게 맞벌이가구 여성의 종사상위치가 임금근로자뿐 아니라 고용주/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등도 많은 한국사회에서 고용

주/자영자들의 시간부족인식이 다른 집단보다도 크다는 점에서 임금근로자 뿐 아니라 이들을 중심으로 한 여성정책도 이루어져함을 알았다.

전통적으로 여자가 해야 할 일은 변화없이 여자에 의해 담당되어지는 반면에 남자가 해야 할 일이었던 것들은 필요와 능력에 따라서 여자도 담당하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여성들의 부담이 증대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부담을 가진 맞벌이 주부들의 시간이 부족하고 바쁘다는 인식이 남성이나 다른 가구형태의 여성들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어떤 맞벌이주부들은 이런 시간부족에 대해 서비스를 구입하여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가사보조자의 도움을 받거나 청소나 빨래하는 수고로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기계를 선택할 것이며 이동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은 청구서를 결제하고, 집을 수리하고 청소하고 유지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자녀나 남편과 대화하는데 더 적은 시간을 쓰고, TV를 조금 보고, 잠을 덜 잘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그들 자신과 가족을 위해 충분한 시간이 남겨져 있지 않다는 데에 불안해하고 그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할 것이다.

시간부족에 대한 인식은 일상생활에서의 실제 행동에 기초한 인식이 아니라 각 개인들의 기억에 의존한 주관적인 생각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그들의 삶의 만족과 스트레스정도, 풍요로움을 인식하는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¹⁶⁾ 또한 시간이 부족하고 삶이 서두르면서 진행되고 있다는 인식은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모두 하고 있지 못하다는 불안감을 이루고 그들이 원하는 일들을 줄이고 삶의 목표를 낮추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16) 여성개발원의 취업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에서도 취업주부들은 집안일과 자녀문제가 자신들의 책임이며 이러한 일을 충분히 해낼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직장에 와서도 집안일을 잊어버리지 못한다고 응답하고 있었다. 또한 그들은 그들의 전반적인 결혼생활 및 직업생활에서는 보통으로 생각하는 경향이지만 사회활동 및 문화생활에서는 이러한 생활을 만족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장혜경·김영란, 1998 : 58-103).

<부표 1> 시간부족인식과 여유시간인식 응답의 교차표

단위 : %

<div>여유시간</div> <div>시간부족</div>	예, 항상	예, 가끔	아니오, 거의	아니오, 전혀	합계
예, 항상	2241(2.6)	6084(29.3)	7330(35.3)	5129(24.7)	20784(24.2)
예, 가끔	1360(1.6)	16707(45.6)	14169(38.7)	4414(12.0)	36650(42.7)
아니오, 거의	954(1.1)	6053(30.9)	10647(54.4)	1923(9.8)	19577(22.8)
아니오, 전혀	944(1.1)	2026(22.8)	1362(15.3)	4563(51.3)	8895(10.4)
합 계	5499(6.4)	30870(35.9)	33508(39.0)	16029(18.7)	85906(100.0)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임.

2) 시간부족은 ‘평소 바쁘거나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까?’, 여유 시간은 ‘여유시간에 무엇을 해야할 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까?’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임.

자료 : 통계청(1999),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부표 2> 시간부족인식에 대한 생활시간 회귀분석(평일)

단위 : 시간

	회귀계수	표준편차
유급노동시간	0.06***	0.03
무급노동시간	0.03***	0.03
여가시간	-0.05***	0.03
상수	2.77***	0.04
F값	1286.1	
DF	3	
R ²	16.2***	

주 1) 시간부족인식에 대한 응답자들의 응답은 전반적인 인식이나 생활시간에 대한 시간일지는 이틀간만 응답하였으므로 만약 응답자가 토요일과 일요일에 응답하였다면 유급노동시간이 적게 기록될 수 있다. 따라서 시간일기에 나타난 유급노동, 무급노동 시간량과 시간부족인식을 회귀분석하는 데에는 제한점이 따른다. 이에 평일로 시간일기 응답자를 제한하여 총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의 양이 시간부족인식에 대한 응답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회귀분석하여 보았다.

2) ‘평소 바쁘거나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질문에 ‘예-항상’은 4점, ‘예-가끔’은 3점, ‘아니오-거의’는 2점, ‘아니오-전혀’는 1점으로 서열척도화하여 평균점수를 구한 값에 대한 회귀분석의 결과이다.

자료 : 통계청(1999),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참고문헌

- 김태홍·김미경(2002), 『제4차 여성의 취업실태조사』, 한국여성개발원.
- 김태홍·주재선(1997), 『맞벌이부부의 가구특성과 고용구조』, 『여성연구』, pp.69-86.
- 문숙재(1996), 『생활시간연구』, 푸른숲.
- 박민자(1988), 『자영소상인 가족의 노동력재생산 방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 박수미(2002), 『여성의 생애과정과 경제활동』,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 박영도(2002), 『거세된 시간, 식민화된 시간, 젠더화된 시간 : 시간압박 현상에 대한 시간론적 해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인의 일상생활연구 I』 발표논문.
- 성지미(2002), 『여성의 자영업 결정요인과 경력단절 가능성』, 한국노동경제학회, 『노동경제논집』 제25권 제1호, pp.161-182.
- 손문금(2003), 『맞벌이주부의 이중부담과 여가시간의 성격』, 『통계연구』 제8권 2호, pp.23-58.
- 손승영외(1999), 『여성의 일과 삶의 질』, 미래인력연구센터.
- 성지미·차은영(2001), 『세대간 동거와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노동경제논집』 24, 97-124.
- 신경아(1999), 『여성의 시간과 여성의 노동 경험』, 『문화과학』 20, pp.68-88.
- 심영희(1996), 『시간문화와 여성-대입수험생 어머니의 삶에 나타난 전통, 현대, 탈현대』, 한국 여성학회 편, 『한국여성학』 제12권 제2호, pp. 1-41.
- 안정옥(2002), 『현대 미국에서 ‘시간을 둘러싼 투쟁’과 소비적 현대성 : 노동, 시간과 일상생활』, 서울대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 이기숙(1994), 『맞벌이가족의 여성, 부부 그리고 자녀』, 『여성연구논집』 5권1호, 부산여자대학 여성문제연구소, pp. 61-92.

- 이기영외(2001), 『한국과 일본의 생활시간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동원(1976), 『직업여성의 이중역할에 관한 연구』, 『논총』 제27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 이현송(1997), 『한국인의 삶의 질』, 『한국사회학』 31, pp.269-301.
- _____(2000), 『가족의 변화와 남성의 역할』, 『동덕여성연구』 창간호, pp.175-198.
- 이효재, 지은희(1988), 『한국노동자계급가족의 생활실태 : 노동력 재생산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22집, pp.69~97.
- 장혜경·김영란(1998), 『취업주부의 역할분담과 갈등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조성혜(1995), 『재택근무자의 시공간 행태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 조 은(1990), 『도시빈민가족의 생존전략과 여성』, 『한국가족론』, 까치.
- 조혜선(2000), 『한국 노동시장 내 여성의 선택과 적응 : 기회와 조건의 불평등』, 연세대 대학원박사학위논문.
- 통계청(1999), 『경제활동인구조사』 DB, www.nso.go.kr.
- 한경미(1991), 『취업주부의 생활시간사용과 시간갈등』,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 함인희·한정자(2001), 『여성의 가족과 일의 조화에 대한 국민 체감의식 연구』, 『여성학논집』 제18집, pp.195-225.
- Bittman, Michael & WajCMAN, Judy(2000), The Rush Hour : The Character of Leisure Time and Gender Equity, *Social Force*, September79(1):165~189.
- Clarkberg, Marin & Moen, Phyllis(2001), Understanding the Time-Squeeze : Married Couples' Preferred and Actual Work-Hour Strategie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Vol.44 No.7*, Sage Pub:1115-1135.
- Fagan, Colette (2001), The Temporal Reorganization of Employment and the Household Rhythm of Work Schedules, *American*

- Behavioral Scientist Vol.44 No.7*, Sage Pub:1199-1212.
- Gershuny, Jonathan(2000), *Changing Times*, Oxford University Press.
- Hamermesh, Daniel S. & Lee, Jungmin(2003), Stressed Out on Four Continents : Time Crunch or Yuppie Kvetch?, <http://www.nber.org/paper/w10186>.
- Hochschild, Arlie R. and Machung, Anne(1989), *Second Shift*, Viking.
- Jacobs, Jerry A. and Gerson, Kathleen(2001), Overworked Individual or Overworkes Families? Explaining Trends in Work, Leisure, and Family Time, *Work and Occupations* 28(1):40~63.
- Jacobs, Jerry A. and Gerson, Kathleen(2004), *The Time Devide*, Harvard University Press.
- Parker, Stanley(1983), *Leisure & Work*, Allen & Unwin press.
- Robinson, John P. & Godbey, Geoffrey(1997), *Time for Life : The Surprising Ways Americans Use Their Tim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 Schor, Juliet B.(1991), *The Overworked American : The Unexpected Decline of Leisure*, Basic Books.

Working Wive's Perceptions of Time Pressure

Moonkeum Son

Other papers are focusing on working wive's dual burden and time conflict. But this study aims are specified as follows : 1) to figure out the rate of working wive's perceptions of time famine. 2) to find out variables influencing the perceptions of time famine and differences the rate of time famine compared with their husband and other women groups. The data for research is time use data from 1999 Lifetime Use Survey by N. S. O.

This study reveals as follows. First, about 87% working wive responded that they felt time famine 'always' and 'sometimes'. They felt more stress than their husbands or other women groups. Second, social demographic variables and variables connected with employment significantly differentiate the perceptions of time famine. Highest perceptions of time famine was reported by the 30~39, 40~49 age group, college educated group, administrators and professional occupation group, full time workers, the case of children at home under age 6. Working wive reported that they felt time famine because of their work and child care or housework. But man pointed that the reasons of time famine were their works and social relations or social activities. If other variables are controled, all women felt more time famine 2.5 times than man.

Key Words : Dual Earner Couples, Working Wive, Time Famine, Dual Burden, Life Time